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도 교 동[†]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여성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분석하고 진로 선택의 변화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장 및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참사 이후 진로 결정에서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삶의 의미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현하려는 의지, 희생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평가의 과정, 보수적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내면적 요인들은 불안과 사회적 안전감 저하와 맞물려 진로 선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위한 진로 상담 및 지원 시에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과 함께 미시적·거시적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 회복과 안전한 소통을 위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옹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매,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진로 경험, 내러티브 탐구

* 본 연구는 2023 4·16재단 생명안전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 도교동,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ehdvhehd77@naver.com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14년 발생한 세월호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회적 참사로, 국민적 충격과 집단적 우울을 불러일으켰다(김성용, 2020). 참사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가족들이 경험한 심리적·사회적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Parkes, 1988), 이는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경제적 삶, 사회적 인식,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등 다차원적 변화를 경험해왔다(이희연, 강민경, 2019; 권옥현, 허소정, 이동훈, 2021; 한정민, 장정은, 전종설, 2020). 또한, 일부는 주변의 비난과 공적 기관의 무책임에 분노하며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기도 했다(김은미, 김병호, 2018).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는 이러한 상실을 청소년기에 경험한 당사자들로서, 가족을 떠나보낸 트라우마와 일상의 붕괴, 환경적 변화 등을 동시에 겪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경험은 정체성 형성과 삶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진로 발달 과정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피해자다움의 수행을 강요받거나(유혜정, 2020), 유가족임을 숨기며 사회적 시선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이동훈 외, 2017). 이러한 복합적 경험은 진로 선택과 실행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이준, 2020).

청소년기 발달의 핵심 과업 중 하나는 진로 형성이다. 진로 형성은 단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결과가 아니라, 개인이 삶의 경험 속

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내러티브적 과정이다(Arastaman, 2019). 이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며,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자아실현, 삶의 의미 형성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이준기, 최용용, 2005). 진로는 곧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역할 수행의 기반이 되며(강양희, 2006; 한지생, 2023), 이러한 역할의 단절은 우울, 불안, 무기력감, 공황 증상,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지혜, 이선혜, 2020).

청소년기는 진로 형성과 자아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시기이며, 가족과 교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이다(Khang et al., 2018). 그러나 이 시기 대규모 재난과 같은 사회적·개인적 충격을 경험할 경우, 진로 적응성은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이지민, 감영배, 2020). 실제로 재난 피해를 겪은 청소년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어려움에 동시에 직면하며(이나빈, 김도희, 주혜선, 2023),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은 진로 발달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정희, 이은희, 2008). 이와 관련해 Erikson(1968)은 청소년기의 진로 선택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진로 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기 개념의 혼란이 발생하고, 이는 진로 전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간의 발달은 각 시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이며, 이러한 위기 해결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Erikson, 1994; Sprouts, 2017),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 형성을 이해하는 데도 이 관점은 유효하다. 특히 사회적 재난을 겪은 여성 형제자매에게 진로는 단순한 직

업 경로의 설정을 넘어, 삶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불안과 전환의 시기에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틀로 작용할 수 있다(Maree, 2024). 이처럼 진로는 재난 이후 삶의 방향성과 자아 회복을 탐색하는 통합적 틀로 기능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의 진로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은 미완의 발달 과업, 내면의 트라우마와 상실을 탐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Maree, 2024). 특히 외상 경험 이후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은 심리적 회복의 핵심 경로로 작용하며(Pivar et al., 2022), 진로라는 서사를 통해 삶의 연속성과 정체성을 다시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로 형성과정은 개인의 내적 동기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사회인지진로이론(Hackett & Betz, 1981)은 개인의 기대와 자기 효능감, 그리고 환경적 자원 및 제약이 상호작용하여 진로 발달을 형성한다고 설명하며, 진로상담 체계이론(김이준, 2020)은 개인과 사회, 환경 체계 간의 다층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미국상담학회(APA, 2017) 또한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복을 위해 미시체계(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거시체계(국가, 제도, 언론)의 통합적 개입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관련 연구는 신자유주의 비판, 국가 책임 문제, 생명 윤리 성찰, 피해자 가족의 심리사회적 고통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이정희, 2023), 연구의 대부분은 희생자의 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형제자매에 대한 연구는 상실 경험(이현정 외, 2017), 구술 생애사(박정민, 2024), 재난지원 서비스 이용(이희연, 강민경, 2019)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진로와 같이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주요 발달 영역에 대한 탐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기였던 희생자의 여성 형제자매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진로 형성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 경험이 어떤 의미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장녀는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Chung, 2013), 이는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이후 더욱 강화되어 진로 선택과 역할 수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난 경험자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ahiem et al., 2021).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외상 서술을 넘어 삶의 재구성과 의미 재창조의 과정을 조망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교차하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진로를 통한 개인의 회복 경험이 사회적 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가족 중 참사 발생 당시 만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연구 참여 시점에서 만 24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참고하였다. 만 13세 이하의 경우 초등학교생으로 진로 탐색 및 준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여성이 아동기부터 남성보다 더 많은 돌봄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경향이 있으며 (Wikle et al., 2018; East, 2009), 특히, 장녀가 문화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봄 역할을 내면화하도록 양육되어 온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참사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여자 형제자매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과 역할 수행에 더욱 밀접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맥락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4.16가족협의회 및 안산온마을센터 관계자와 소통하여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에 조언을 구하였다. 또한, 기존 세월호참사 관련 연구자 및 작가기록단 소속 작가와 협력하여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세평적 사례 선택(김선숙, 2022) 방법으로 첫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첫 번째 연구참여자를 통해 추가 참여자를 추천받아 추가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형제자매라는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를 시작하기 앞서, 면담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이나 트라우마 재경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면담 중단 및 전문 심리지원 연계를 포함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으며, 심리지원을 위해 세월호 심리지원 기관 담당자와 연구 진행 전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나이	만 33세	만 30세	만 28세
직업	전업주부	구직자	구직자
형제순위	3녀 중 첫째	2녀 1남 중 첫째	3녀 중 첫째

에 소통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심층인터뷰 완료 후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들과 전화 통화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대면으로 접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접수 인터뷰에서는 연구의 목적, 내용, 진행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재확인한 후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칭이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섭외 순서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심층 면담 당시 만 33세였으며, 세 자매 중 장녀로 참사로 막내동생을 잃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세월호참사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세월호참사를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녀는 현재 육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나, 전업주부의 삶은 ‘나를 위한 성취’가 부족해 때때로 우울감을 주었다. 육아가 끝난 후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B는 심층 면담 당시 만 30세였으며, 세 남매 중 장녀로 참사로 둘째동생을 잃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경험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국가지원 청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업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성공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참사 이후 ‘몸에 대한 다른 감각’을 가지게 된 경험을 활용해 창업을 구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심층 면담 당시 만 28세였으며, 세 자매 중 장녀로 참사로 둘째동생을 잃었다. 그녀는 ‘그런 일’을 겪은 지 10년이 지난 현재, 공공부문 채용시험을 준비하며 매일 ‘나태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생산적인 일을 찾는 한편,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연구 방법과 과정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선택 경험을 시간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다. Dewey의 사회 구성주의적 경험론에 근거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나 소수자의 생활 및 사고를 포착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Creswell, 2010).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경험은 개인적, 사회적, 연대기적,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는 특정 환경과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경험은 개인이 이야기로 구성한 삶의 흔적이며(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이 이야기화된 경험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김대현, 2006). 세월호참사라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상실을 경험한 여자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삶을 재구성하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조명하였으며, 진로 경험의 시간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3명의 연구참여자 대상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대면 접수 인터뷰에서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 각각 2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참여자의 상태와 인터뷰 내용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회기별 면담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2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일정표는 표 2와 같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이동 거리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1회차 인터뷰 이후 전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분석하

표 2. 연구참여자 면담일정표

	회차	면담 날짜(면담시간 분)	회차	면담 날짜(면담시간 분)
연구참여자 A	1차	2024.07.19.(120)	2차	2024.08.12.(97)
연구참여자 B	1차	2024.08.14.(107)	2차	2024.08.14.(60)
연구참여자 C	1차	2024.08.20.(120)	2차	2024.09.20.(90)

였다. 1차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회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 텍스트는 심층인터뷰 직 후 전사 및 정리하였다. 현장 텍스트는 모든 면담이 완료된 후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맥락을 반영하여 의미화한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신뢰성 확보

내러티브 탐구는 한 사람의 삶을 시간의 흐름과 연속성 속에서 조망하며, 개인정보와 내면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김영천, 2006).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비밀 보장과 안전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 번호: 2024-R-0305-002)을 받은 후,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원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전사본을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모든 연구참여자와 심층 인터뷰 직전 지난 인터뷰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텍스트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연구참여자와 결과를 공유하고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연구의 해석과 방법론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공 교수, 공공기관 연구자, 박사 졸업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연구 설계, 참여자 모집 방식, 인터뷰 절차, 텍스트 해석 내용 등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윤리적 적절성과 방법론의 타당성, 그리고 해석의 일관성에 대해 조언을 제

공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설계를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교차적으로 검토를 받으며 해석상의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 중요한 해석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텍스트의 구조와 의미 분석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결 과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로, 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기였던 연구참여자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진로 선택 경험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며(Clandinin & Connelly, 2000; 김아람,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성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각 내러티브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의 진로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참사 이후의 경험은 감정과 인식의 흐름, 그리고 진로 및 직업 선택 과정에서의 전환 시점을 고려하여 ‘참사 속’과 ‘참사 이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A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A는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르고, 외부 자극에도 ‘괜찮아’ 하며 넘기는 성격이었다. A는 자신을 ‘소박한’, ‘빛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우울함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절을 회상하였다. 높은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화가를 꿈꾸던 A는 결국 현실의 조건에 따라 평범한 대학, 평범한 학과를 선택해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평범한 사무직으로 첫 직장에 취업하였다. 업무에 적응했다고 느끼기 시작할 무렵, 세월호참사를 경험하였다.

참사 이전: 자신의 역량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진로 선택

[현실의 벽에 맞춰 진로 선택]

연구참여자A는 ‘평범하게’ 사는 것을 일종의 목표로 설정하고 진로를 결정해왔다.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나, 입시 준비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성적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였다. 청소년기 진로 고민은 주로 엄마와 상의하였고, A는 엄마를 ‘멘토’ 같은 존재로 인식하였다. 엄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자이자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인물이었다.

“화가 되고 싶고 좀 커서는 디자인 쪽 일을 해보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 입시를 본 거지 내가. 저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지.”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내 성적에서 갈 수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저것 고민을 해서 그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2>

[직장의 군대식 문화에 오래 인내함]

대학 졸업 무렵, 학교의 권유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평범하게’라는 삶의 일관된 방향에 따라, 일을 쌓아두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며, 자신의 의견이 말대답으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도 A는 참았다. ‘하루하루 갈구는’ 조직문화 속에서도 버틴 것은, A가 가진 인내심의 단면을 보여준다.

“거기가 군대식 문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한 몇 개월을 참은 거예요. 제가 인턴 기간만 3개월이니까 그 후에도 몇 개월 그러니까 나의 인내심은 거의 막 6~7개월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길었어. 인내심이”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참사 속: 진상규명 활동으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치유 경험

[넘치는 슬픔, 정치 없이 떠돌]

연구참여자 A는 세월호참사 이후 부모가 무너져 내리듯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다. 밤마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던 A는 엄마의 방문 앞에서 울음을 확인해야 비로소 잠들 수 있었다.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모에게 혹여 다른 사고가 생길까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서도 온라인 방송을 켜두었다. 부모 걱정과 상실감으로 업무 지속이 어려워 자주 조퇴했으며, 조퇴 후에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집으로 곧장 가지 못했다. 멘토 같은 존재였던 엄마의 고통은 A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왔고, 참사 이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람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부모가 걱정할 것

같이 퇴사하지 못하고 참고 출근하였다.

“회사 가서 울음이 터졌어. 어느 날은 회사 가서 울음이 터졌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가라고. 회사에서 일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럴 정도로 울어. 그렇잖아. 그럼 나왔잖아 회사에서 나왔잖아 집으로 못 가겠는 거야. 엄마가 걱정하니까... (안산여기저기들) 몽유병자처럼 막 헤매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퇴근 시간 되면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가고... 재는 동생 죽었는데도 저렇게 웃네. 그렇게 다 생각할 것 같은 약간 피해망상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게 되는 것 같아.”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형제자매 활동을 위해 퇴사를 결심함]

A는 진상규명 활동 공간에서 만난 형제자매들과의 만남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감정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시선 의식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안도감을 느꼈으며,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A는 참사 직후 부모보다 ‘덜 힘든 존재’로 간주되는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사회적 참사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상황을 알림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특히, 회사 일은 동생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퇴사를 선택한 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애들과 막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지금 내 상황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게 맞지. 지금 내가 제정신이고 하는 게 좀 더 이상한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에서 받아들여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거죠. 노래도 불렀어. 뭐야 또 집회도 나가 발언도 해, 편지도 써, 별의 별걸 다 해서 발산을 다 하고 있을 때니까... 뭔가 해봐야겠다 해서 이 정도(편지쓰기 프로젝트)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설득하는 시간이 있었잖아 이제... 그래서 그 몇 달간 동안 형제자매 애들을 좀 만났죠.”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2>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점점 관심 없어질 텐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거(직장 생활)를 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회사 다니는 거는 동생을 위한 게 아니니까.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유가족다운 형제자매 활동가]

A는 세월호참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했다. 활동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A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등 과도하게 친근한 행동을 보였고, A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유가족 다음이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다.

“초기에 유가족은 다 부모님이라는 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없었잖아요... 피해자는 이래야 되고 유가족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그런 틀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2>

“막 나에게 되게 친근하게 반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별컹컹 안을 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럼 참는 거지.”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참사 이후: 경제력보다 나의 안전이 중요

[세월호 유가족으로 다시 시작한 직장생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경제적 여유가 사라질 무렵, A는 직장생활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취업을 결심했다.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 노출에 대한 고민으로 부담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계약직을 선택했다. 동시에, 동료 중 누군가가 ‘보수 정치 지지자’일 경우 자신을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동료들의 반응을 경계하게 되었다.

“내가 세월호 가족인 걸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은 거야... 언제 그만둬도 괜찮게 약간 부담 없는 쪽 일을 하자. 그래서 계약직을 그냥 하나 지원을 했는데 오라 그래서 갔어... (내가 유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분위기를 깨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 그러니까 나는 말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말했을 때 이 사람들 분위기가 괜

찮느냐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2>

[일상에서도 만나는 유가족 이름]

일상 속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은 A에게 내면의 갈등을 유발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가정사를 묻는 문화가 일반적이기에, A는 종종 ‘동생의 죽음’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A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 유가족 정체성을 숨기고자 했지만, 스스로와의 갈등 끝에 자책감이 커졌고, 결국 동생의 죽음을 드러내어 이야기하게 되었다.

“내 아픈 얘기를 결국은 다 해야지. 이게 다 100% 오픈이고 이 사람이랑은 결국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 그 마음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가족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단단함]

A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내면의 단단함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내면의 힘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다. A는 사회적 참사로 동생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받은 기억이 회복을 지지해 주는 자원이 되었다.

“약간 가족이랑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가 그렇게 해도 날 뒷받침해줄 가족들이 있다는 약간 뒤에 안정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2>

[직업 선택 기준: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

참사 이후 A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의 감당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만 주는 일을 원했으며, 수입보다 자신의 정서적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참사 이후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가 치밀고, ‘당장 사과하라’를 요구하는 등 ‘급진적인 성향’으로의 변화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업생활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깊은 우울을 경험한 이후, A는 자신의 우울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문서나 사물 중심의 일만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속에 화가 많아서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터져 막, 나는 돈 조금 받아도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일 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중요한 것 같아.” <연구참여자 A, 심층인터뷰 1>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B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활동량도 적고 의욕도 낮은 ‘꿈이 별로 없는’ 아이였다. 도전에 대한 긴장감이 커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일이 드물었고, 늘 주변 또래를 관찰만 하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동생들에게 양보하는 말으로, 자기표현보다는 자기성찰에 가까운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늘 ‘보조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였다. 글쓰기를 좋아해 작가를 꿈꾸던 B는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던 중 세월호참사를

경험하였다.

참사 이전: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고려한 진로 선택

[흥미를 중심으로 진로 고민]

연구참여자 B는 명확한 진로 목표가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작가를 꿈꾸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돌 영상을 보면서 UCC 콘텐츠에 흥미를 느꼈고, 이는 방송이라는 진로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B는 엄마를 삶의 가치와 의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언자로 인식하였다. 엄마는 명확한 진로 목표 없이 소극적인 B에게 ‘다양한 배움 기회’를 제공하며,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래 방송 작가를 꿈꾸고 (고등학교) 방송부에 들어간 거였는데 작가가 사라지면서 저희 부서에도 작가가 사라져서 편집을 하게 됐거든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만약에 만든다면 의미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스스로도 좀 더 만족할 것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이상과 현실의 타협]

B는 진로 선택에서 두 가지 주요 고민을 안고 있었다. 하나는 가정의 장녀로서 현실적인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열망이었다. 작가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반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방향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 끝에 B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취업 가능성과 개인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미디어문화콘텐츠학과를 선택해 편입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재미를 주는 콘텐츠는 어렵더라도, 가치를 담은 의미 있는 콘텐츠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저희 세대는 원하는 전공을 지원하기 보다는 취업 잘 되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닌데 제가 첫째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콘텐츠나 영상까지도 관심을 갖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건 좀 가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꼭 글 쓰는 일이 아니어도.”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참사 속: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치관 변화

[침묵의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의 변화]

연구참여자 B는 세월호참사 초기, 감정 표현 자체가 어려웠다. 어릴 적부터 ‘자기표현이나 주장을 잘 안 하는’ 성격으로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B는 참사 이후에도 감정과 욕구를 말로 표현하는 데 힘겨움을 느꼈다. 특히 ‘형제자매 입장’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쉽지 않았고, ‘단원고 졸업생’이라는 정체성은 ‘외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만히 있는 것조차 버거운 시간이었다. 참사 직후 1년 동안은 안산 지역에 조성된 추모 분위기에 비교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보상 문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

며 추모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사회가 정한 추모의 기한, 유가족을 향한 시선의 변화는 B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게 되었다.

“사건 후에는 더 좀 가만히 있는 게 힘들기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는 가장 컸고 그게 사실 도움이 너무 힘든 상황에 그게 사실 더 도움이 되기도 했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그래도 안산에서는 리본 달고 해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갔을 때보다 편안하게 있다가... 안전공원이 생기면 생긴다고 하니 확실히 안산의 분위기가 많이 뒤집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집값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도 또 바라보게 되고 산이나 이런 집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2>

[부모와 크기가 다른 슬픔]

B는 유가족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웠다. 유가족 내부에서는 형제자매가 부모보다 덜 아플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으며, 부모와 형제자매를 향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도 달랐다. 이러한 위계 속에서 B는 자신의 목소리를 검열하게 되었고, 부모와 형제자매 사이에 기대되는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형제자매니까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시고. 잘 못 하거나 잊어버리

는 일들이 있거나 그래도 부모님은 좀 이해하시는 편이어서 형제자매는 좀 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고 저희가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 자체가 수평적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게 좀 상처가 됐던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참사 경험을 진로에 적용함]

시간이 흐르면서 B는 자신의 진로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편입을 준비하던 계획은 중단하였다. 참사 이후 미디어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한계와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편입을 포기한 데는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과 회의도 작용했다. 아울러 촬영 현장에서 트라우마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도 크게 작용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따라붙는다고 느꼈고, 그것이 동생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떨쳐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B는 경제적 대가는 없지만 사회적 참사를 알릴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엄마의 권유’와 동생의 꿈을 실현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사회참여는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자, 자신의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기도 했다.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런...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동생도 사실 그런 성향이니까 만약에 제가 죽었어도 동생도 그랬을 거란 생각을 했고... 스펙은 안 되지만 부채감이나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 (편입, 대학 수

능) 그거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꼈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참사 이후: 내면의 가치 실현, 트렌드보다 의미있는 작업 추구

[동생과 분리, 새로운 도전]

연구참여자 B는 가족과의 분리가 쉽지 않아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특히 몸이 아픈 엄마를 돌보며 일과 병행하는 상황에서, 동생의 이름으로도 함께 불리는 활동 환경은 B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피로감을 더했다. 심리상담을 통해 B는 자신과 동생을 구분 짓는 작업을 시작했다.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부담을 안 느끼는’ 이들을 보면서 분리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만의 진로를 위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1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고, 마케팅 회사 콘텐츠팀에 입사하였다. 자신에게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높은 보수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공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들을 접하며 다시금 한계와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다.

“(나를 동생과 연결시키는)그걸 상담받으면서 좀 많이 구분 짓고... (엄마의)병원 예약이 일정이 있을 때 그때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같이 가기도 하고... 병원을 오가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기본적인 일인데 좀 업무 성과가 너무 안 나오

게 되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이번에는 그걸(사회적 참사를) 알리고 이랬던 건 아니어서 그걸 분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AI언론은 공정한지 이런 확인이 안 된 상태가지고 홍보 기획안을 하는 게 스스로 잘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작하면서 상처가 됐던 경험도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좀 느리기도 하고 업무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고민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드러내 기도, 버티기도 힘든 자리]

사기업에 취업한 B는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오는 피로함을 경험했다. 동료의 시선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은연중 영향을 미쳤고, 업무에서도 세월호 활동 당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특히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 방식은 B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었다.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할 때마다 자책했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며 다시 우울감이 깊어지기도 해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유가족인 걸 드러냈을 때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아닌 게 더 크니까 그걸 얘기하기 어렵기도 하고... (업무 내용과) 거의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게 쉽지 않고 그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나를 봤을 때

더 자책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비난과 평가가 있고 비난이 없더라도 평가는 자연스럽게 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나 잠깐 또 괜찮다가”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2>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도 됨]

이후 B는 사기업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원함을 확인하게 되면서, ‘속은 매우 시원하고 후련’하다고 느꼈다. 성과 중심의 업무에 영향을 받는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면서, 이는 ‘자신이 성장해야 하는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적성과 기질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역의 분위기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하면서, 지역 환경의 변화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불편함)그걸 받아들이는 편이었다면 불편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왜 불편하면 전혀 못하겠는 그리고 할 이유도 사실 없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안산 내에서 어떤 이게 좀 더 참여하게 연결되는 그것도 확실히 또 느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고, 안산에서는 그 이슈에서 완전히 다른 데서는 이 이슈를 완전히 내려놓고 지낼 수 있다면 여기서 그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바를 구할 때도 좀 그랬고.”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2>

[직업 선택 기준: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일]

세월호참사 이후의 활동과 직업 경험을 통해 B는 자신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자각하였다. 언론에 의한 상처와 사기업에서의 좌절을 겪으며, 이익보다 가치와 의미를 중심에 두는 일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변화의 가능성과 긍정적 감정,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진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콘텐츠 제작도 트렌드보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방식에서 의미를 느꼈다.

“사건 이후에 더 가치나 의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이익을 생각해서 일한 결과가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결과이기도 했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파악하게 되기도 했던.”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1>

“저와 가치관이 안 맞는 일을 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는 의욕도 사실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저의 이력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이력으로 넣고 싶은가” <연구참여자 B, 심층인터뷰 2>

연구참여자 C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C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혼란 경험이 많아,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잘

못을 먼저 생각하는 ‘눈치 보는’ 조용한 아이였다. 원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도 뛰든 ‘시키는 일’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었다. 진로 목표는 없어도 늘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연구참여자 C는 대학 입학 직후 세월호참사를 경험하였다.

참사 이전: 명확한 목표 없이 성실함으로 진로 선택

[성실함으로 만든 특성화고 진학]

연구참여자 C는 원하는 진로 방향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권유로 다양한 활동을 접했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특정 분야의 역량이 형성되었다. 이 능력을 살려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C에게 엄마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해주는 존재였다. 진로에 관한 이야기도 부모와 교사에게 나누었지만, 특히 엄마에게 많은 의지를 했다.

“컴퓨터반에 저를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 (자격증을)땀어요... (특성화고는) 성적이 높아야 갈 수 있고 대학도 잘 보낸대. 그러니까 여기를 가볼까 하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원하는 대학 입학]

C는 뚜렷한 진로 목표는 없었지만, 선호하는 교과목과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진학 후 진로를 결정할 생각이었고, 특기를 살려 특성화고에 입학했지만 그 특기를 이어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했다. 성적과

가능성을 고려해 담임교사의 권유에 따라 진학을 결정하였다.

“(가고 싶은 대학에는)○○학과는 지원자가 좀 많았어요. 같은 학교의 ◎◎학과였는데 지원자가 많았어요... (담임)선생님은 @@를 지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학교를 가려면 @@가 맞다. 같은 인문계 열이니까 괜찮지 않겠니... 과감히 결단... 처음에는 진로를 정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어렸을 때는 그냥 대학교 진학하고”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데 너무 걱정 끼쳐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 비하면 나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래도 좀 덜 슬픈 내가 뭔가 좀 더... 진짜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그때 학교를 갔다 오면서 지하철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도 그냥 물론 그 따위로 말하는 새끼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근데 그거 외에는 그냥 그냥 학교를 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2>

참사속: 동생을 대신해 다양한 일에 도전

[슬픈 집, 덜 슬픈 내가 해야 할 일]

연구참여자 C는 참사 초기, ‘나도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다. 부모가 슬픔과 혼란에 잠긴 모습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자신까지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부모의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 당시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부모는 진상규명 활동으로 자주 집을 비우곤 했다. C는 자신만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감당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동생을 잃은 뒤, 등하곶길은 특히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참사 당일 아침 동생과 통화했기에, 무사할 것이라 여겼다. 그 후로 학교를 오가는 길에서 슬픔이 밀려왔다. 학교에서 세월호참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휴학을 고민했지만, 엄마의 학업 유지 바람을 받아들여 학교를 계속 다녔다.

“뭔가 나까지 이러면 내가 슬픈 건 슬픈 거고 내가 울면서 다니더라도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는 위로, 지역의 온도 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은 C로 하여금 유가족임을 숨기게 만들었다. 참사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 유가족다움을 강요하는 말들은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상담사가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거나, 사람들이 ‘유가족인데 밝아 보인다’고 했을 때 깊은 상처를 입었다. 대학교 동아리 면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선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은 C에게 큰 불편함과 피로감을 안겼다. 온라인상에서 유가족을 향한 비난 댓글을 보며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커졌고, 참사 초기 함께 울던 지역 사람들조차 추모공원 조성 이야기가 나오자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다. 결국 C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그 선택이 잘한 일이라고 여겼다.

“다들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무례하지 않고 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얘기 안 해도 술을 같이 마시고 또 울고 이런 게 그냥 속이 좀 후련해지고 좋았는데 (중략) 나는 그걸 어디다가 얘기할 준비가 안 됐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 다 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그런 그걸 일부러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C, 심층 인터뷰 1>

“1~2년 사이는 되게 되게 그래도 뭔가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진실을 밝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위도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2>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발버둥]

C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발버둥’치듯 치열하게 살아갔다. 동생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간다는 죄책감은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졌고, C는 뭐든지 해보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렇게 자신을 ‘치열한 하루살이’라고 표현했다. 무리한 생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C는 이런 경험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진로 기준을 갖게 되었다. 언제든 일이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 때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못했던 방송국

활동도 대학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바쁜 대학 방송국 동아리 활동 덕분에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영상을 제작하고 결과물을 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C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다고 느꼈고,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진로 방향을 세웠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다는 후회 없이 하루 후회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게 좀 강박처럼 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가 뭔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학교방송국) 지원을 했는데 면접이 딱 돼 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방송국 동아리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바쁘고 하니까 약간 이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일도 저한테는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약간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성과라고 하긴 그렇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서 했는데 또 사람들이 저한테 잘한다 잘한다 해서 제가 이게 뭔가 내 진로로 맞는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참사 이후: 삶의 의미에 맞는 일은 무엇인가

[부모와 함께 머무르고 싶은 욕심]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가족이라는 존재의 힘에서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회가 들기도 했다.

참사 당시 자신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식구들을 위로했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다. 이러한 마음은 점차 부모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어졌다.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보며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러한 마음이 자신의 욕심임을 알기에 자신을 타하는 마음도 있었다.

“인생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내가 좀 더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다들 위로 해줬어야 되는데... 나이가 그만큼 됐으면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제가 서른이라고 생각을 하니깐 그런 말이 자꾸 신경이 쓰이나 봐요.”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2>

[슬픔이 준 변화를 기회로]

C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며, 과거처럼 성실하게 공부하던 습관을 회복했다. 복학 후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도 도전했다. 공영방송국 파견직으로 일하며 사회생활을 경험했지만, 참사와 관련된 업무는 심리적 부담이 컸고, 직장에서의 편견 어린 시선도 힘들었다. 이후 그녀는 생계를 위한 일을 고려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과 현실적인 조건 사이에서 갈등했고, 능력과 원하는 것의 간극을 느끼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점점 성과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지쳐갔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 방송 영상 편집 쪽으로 선택하고 있는 건데...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은 안 오고 하니깐 속상하다가. 근데 약간 이

게 마지막 *** (공영방송국)은 마지막 보류였거든요. 왜냐하면 파견직이었어서 파견직은 진짜 쓰고 버리는 느낌이 강하니까... 일 구하기 힘들니까 가보자 해서 가서 2년을 한 거죠.”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뭔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받는 일이면 약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수록 선택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쁜 것]

C는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나쁜 일로 여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동생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죄책감 속에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최선을 다하려 했다. 하루를 열심히 보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세월호참사)이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보내야겠다... 슬픔의 에너지가... 아깝게 날렸구나 생각하고 죄책감가지고 또 반성” <연구참여자 C, 심층인터뷰 1>

[진로 방향 탐색 중: 삶의 의미를 찾아서]

C는 참사 이후,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 일의 의미와 자신의 진심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

다. 삶과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이후, 일의 종류보다 삶의 의미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의미를 추구하는 고민은 오히려 시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10년 가까이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문제였는지 돌아보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일과 진로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속에서 유독 자신만 복잡하게 고민하는 듯한 괴리감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의 의미와 진로의 방향 사이에서 탐색 중이다.

“(세월호참사)때부터 고민한 것 같아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삶은 뭘까... (의미를 찾는 것)그게 너무 어려워요. 한 10년 고민한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니까... 시작하려고 할 때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도 뭘가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고 하니까 시작이 어려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연구참여자 C, 심층 인터뷰 1>

공통된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경험은 참사 이후의 행동 방향이나 진로 선택 기준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닿아있는 내면의 의미가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앞으로 유사한 사회적 참사를 겪게 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세월호참사 이후의 고통과 회복의 경험이 이후의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이유 또한, 그러한 기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밝혔다.

“내가 이거 잠깐 시간 내서 해주면 내 다음 참사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그 사람들은 상처 내가 받은 거가 10개라면 9개 받겠지.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상처 가뜩이나 나는데 하나라도 덜 받으시라고” <연구참여자A> “10년 됐는데 이태원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도 자료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남아 있겠지 했는데... 이제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B> “이런 활동을 하는 일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서 일어나지 말라고 다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연구참여자C>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사 당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이후 사회로부터 진심 어린 이해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감정 반응이나 경계심,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뉴스 보다가 내가 갑자기 막 욕을 해. 막 무슨 참사가 일어났네 참사가 일어났는데 누가 뭘 못했네... 내가 갑자기 울어. 그럼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우는지 모르고 당

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연구참여자A>
 “주변의 반응도 살피게 되니까 여기에서 좀 더 플래시백 났고 또 긴장도가 확 높아지고 주변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그냥 식당에 갔을 때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 순간에 또 그런 얘기가 또 잘 들리게 되니까” <연구참여자B>
 “저는 그때 약간 부정적인 걸 많이 봤었거든요, 세상이. 와 진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고... 세상은 다 같이 힘내서 협력해야 살 수 있는데 인간은 특히나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라는 생물이 왜 그렇게까지 이기적으로 살면서 혼자 하려고 하는지” <연구참여자C>

진로 선택 경험의 의미

본 장은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로,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선택 경험을 종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때 의미 해석은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그리고 공간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사를 겪은 이들의 진로 선택이 어떻게 내면적 성찰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세월호참사 이전에는 자신의 역량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형제자매들과 함께한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였고,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경제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A는 직업 선택의 기

준을 ‘심리적 안전’에 두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참사 이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진로를 설계하였다. 참사 이후에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후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기업에 입사하여 일 경험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B의 직업 선택 기준은 ‘가치 실현’으로 재정립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참사 이전에 구체적인 진로 목표 없이 성실성과 개인적 특기를 중심으로 진로를 형성하였다. 참사 이후에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다양한 일에 전투적 임하며, 직업 선택 기준을 ‘삶의 의미’와의 부합 여부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세 명의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참사 이후 외적 조건과의 타협이나 조정 중심의 진로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와 정체성,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진로 방향을 재구성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들의 진로 경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업 선택 기준의 변화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위치, 능력, 가정환경 등 현실적 조건에 기반한 진로 선택에서, 내면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참사로 인한 상실을 경험했음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심리적 회복과 내면의 단단함을 형성해 나갔다. 이 회복의 기반은 가족 관계, 기억과 표현, 형제자매와의 감정적 유대 등에서 나타났으며, 진로 선택 또한 심리적 안정감, 가치 실현, 삶의 의미 등 내면적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삶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보여주며, 오콜라호마 폭탄 테러 생존자들의 경험과도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Pivar et al., 2022). 반면 이러한 내

면 지향적 기준은 진로 선택과 직무 수행에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시사한다.

둘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지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이슈와 환경 변화에 높은 감수성을 보였으며, 직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때로는 사회적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받는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검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 선택에 있어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 동기로 삼으면서도, 그 경험 자체가 감정적 반응과 연결되어 선택의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적 참사 경험자와 공동체 간 상호작용의 질이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자신이 위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언론과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 사회적 비난과 조롱, 지역사회 태도 변화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직장 내에서 유가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불안을 느끼는 등, 참사 이후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트라우마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민감성은 사회와 직장 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약화시켜,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평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부모의 슬픔을 돌보는 존재로 위치 이동을 경험하였다. 이는 자신의 진로보다 가족의 회복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장녀로서의 위치에서 돌봄 역할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태도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심리적 피로와 우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들의 진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여자 형제자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실의 감정을 표현하며 직업 선택과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실적 조건보다 내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직업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형성하였으나, 이는 진로 목표 설정과 선택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였다. ‘누구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 있다’(Roland, 2009). 연구참여자들은 자기표현, 감정 분출, 성실한 일상 등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도하며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의 경험은 잊히지 않고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떠오르며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유가족의 삶은 마치 지뢰밭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트라우마 증상은 언제 생활과 업무에 연결될지 예견하기 어려워 직업 선택에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둘째, 사회적 참사로 인한 가족, 직장, 학교, 지역사회의 변화는 여자 형제자매들의 안전한 사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참사 초기부터 부모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슬픔과 혼란을 경험하였고, 부모가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면서 안전하게 상의할 사람이 없어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엄마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 부모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부모의 부재와 역할 변화로 인한 의무감과 불안을 드러냈다. 특히 엄마의 아픔은 딸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회적 가면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김은정, 한영주, 2025), 이는 참여자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지역을 살아가기 힘든 곳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려워 숨기게 된다’는 표현처럼 편견과 낙인에 민감한 반응으로 사회진출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언론, 미디어, 사회적 분위기, 국가 정책 등 거시적 환경은 여자 형제자매들의 진로 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참사 초기 왜곡된 보도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지연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한 연구참여자는 ‘참사 소식에 국가 당국의 무능을 보며 욕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며, 사건에 대한 미디어와 사회의 반응을 개인적 트라우마를 강화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댓글로 비난받은 경험’으로 유가족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반응에 불안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구직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망설이게 하였고, 일터와 학교에서 사회적 편견을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월호참사 희생

자의 여자 형제자매인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선택 기준을 변화시켜왔다. 사회적 시선과 정서적 부담 속에서도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진로 방향을 재구성한 이들의 경험은, 개인의 진로 선택이 미시적 경험과 거시적 구조, 그리고 개인 내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월호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상담 및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한 취업 연계나 기능적 접근을 넘어, 심리적 회복, 내면의 만족, 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자기 수용을 통해 자기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지원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매들의 진로 경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진로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내러티브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이들의 진로 선택과 수행은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감정, 가족과 지역사회 등 가까운 환경, 그리고 사회적 시선과 구조적 조건이라는 다층적 요소들이 긴밀히 얽혀 형성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나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감’과 같은 내면의 가치 변화 속에서 진로를 다시 모색하게 되었으며, 부모의 무너진 돌봄 기능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불신, 정치적 시선의 부담 등은 근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유가족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 국가에 대한 불신, 공개적 비난의 경험 등은 이들의 진로 선택을 제약하거나 유보하게 만드는 거시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절된 층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개인의 삶의 경로를 재구성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각자의 이야기 안에서 의미화되어 드러난다. 이는 진로 발달이 개인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경험과 관계, 사회구조가 교차하는 서사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사회적 참사 이후 진로 재구성이 단일한 경로로 수렴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타 재난 생존자들의 경험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변화는 개인과 미시체계, 거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양상은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Pivar et al., 2022).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생존자의 경우, 신속한 대응과 공동체의 지원에 감사를 표현하며 타인과 공동체와 새로운 연결감을 느꼈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직업 방향의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ivar et al., 2022). 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동체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다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으며, 직업 선택과 방향 전환에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지역 공동체에서의 갈등과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편견을 우려하며 유가족임을 드러내는 것에 내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안정적인 진로 발전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는 지역과 사회의 편견과 마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희생자 유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을 보여준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환대가 필수이다(Herman, 2023). 폭력 피해 생존자는 생존자를 비난하는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 공동체가

생존자의 정당성을 명확히 옹호하기를 바라며, 공동체의 사건 진실 규명, 인정, 사죄, 책임 이행, 배상, 재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생존자가 사회진출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추진력이 된다(Herman, 2023). 이러한 관점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성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참사로 동생을 잃은 슬픔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불안과 책임을 느꼈다. 이들이 의지하던 부모는 슬픔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진상 규명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부모의 변화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고, 자신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자신의 감정과 원함을 숨기기도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직접 진상 규명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진로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김정옥, 윤재호, 2017; 유희정, 2014), 특히 가족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재난과 정신건강, 2015).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가족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박미현,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참사 이후 신속하고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복의 중요한 배경 조건임을 시사한다. 국가적 재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이행은 필요하다(이정희, 2023). 재난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다양한 맥락은 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갈등적으로 나타나면 재난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피해당사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로 확대되며, 1차 피해당사자의 피해회복 지연에 가중될 수 있다(홍성만, 서인석, 2018). 참사 피해자의 회복적 진로형성과 삶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이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공동체의 책임성 있는 대응과 피해자의 감정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담당자는 정치적 민감성을 갖고 피해자 권리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참여자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자신의 삶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받았지만, 직업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직면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서사를 통합하고, 모든 시민의 삶을 공정하게 유지하려는 지역사회의 능력임을 보여준다(Berger, 2017). 따라서 상담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개입뿐 아니라 심리상담에서 그 개인이 놓인 사회적·환경적 맥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Goodman et al., 2004) 전문가로서의 상담자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Goodman et al., 2004; O'Brien, 2001), 이는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반추와 희망이라는 내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김현미, 정민선, 2014).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상담자와 지원 담당자의 공감과 인정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가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과 지지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지원 담당자가 피해 경험에 대해 공감과 권리 옹호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여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참사 희생자 형제자매의 삶의 방향성 모색과 심리적·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희생자 형제자매의 진로 경험을 개인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일상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체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후기 청소년 시기에 참사를 경험하였다. 진로 선택에서 전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이 달성해야 할 과업이 다르다. 전기 청소년기의 진로 경험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연령 범위를 전기 청소년으로 확장하여 발달 단계별 진로 경험과 사회적 참사의 영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개인 심리적 변화와 가정환경의 세부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와 출생 순위, 가족 형태 등 다양한 가정환경을 고려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참사가 발생한 시기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 역시 간접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시기 안산 지역에서 청소년기

를 보낸 이들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여 지역적 요인과 사회적 참사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양희 (2006). **중등 여고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조직물입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권옥현, 허소정, 이동훈 (2021). **재난 유가족의 낙인경험 탐색: 낙인사회인지모델을 적용하여 세월호 재난 5년 시점에서의 가족협의회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97-828.
- 김대현 (2006).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기반 탐색**. 교육과정연구, 24(2), 111-134.
- 김선숙 (2022). **결혼이주여성들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김정고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5(3), 37-73.
- 김성용 (2020). **세월호참사 전후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12, 11-50.
- 김아람 (2021). **관계적 내러티브 탐구자-되기: 내러티브 탐구과정에서의 긴장과 협상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2), 5-28.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은미, 김병호 (2018).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 상실 경험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2), 89-129.
- 김은정, 한영주 (2025). **중년 기혼 여성의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0(2), 327-350.
- 김이준 (2020). **진로상담에서 체계이론 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문사회21, 11(2), 1117-1132.
- 김정옥, 윤재호 (201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229-252.
- 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 탐색**. 교육치료연구, 6(2), 213-228.
- 박미현 (2011). **재난피해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모형 개발**.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7, 67-85.
- 박정민 (2024). **세월호참사의 생존자·형제자매·그 곁의 시민이 만들어 낸 “강줄기의 방향”을 그리다 -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온다프레스(2024). 구술사연구, 15(2), 147-156.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유해정 (2020).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과 대응 전략: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의 경험과 사회적 치유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8(2), 151-189.
- 유희정 (2014). **탄력성과 고통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59-85.
- 이나빈, 김도희, 주혜선 (2023). **재난경험자들의 재난 후 정서·행동·신체·인지적 어**

- 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재난유형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3), 353-374.
-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서은경 (2017).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사회적지지, 갈등, 고립경험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8(5), 331-355.
- 이정희 (2023). 세월호참사 희생자 형제자매의 상실 경험 연구-해석현상학적 분석. *사회복지정책*, 50(1), 47-78.
- 이준기, 최응용 (2005). 인지행동치료 진로집단 상담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8(2), 124-139.
- 이지민, 감영배 (2020).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4), 137-169.
- 이지혜, 이선혜 (2020). 진로이행기 청년의 ‘나답게 살아가기’: 전이경험으로서의 위기와 그 이후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유라시아연구*, 17(3), 129-166.
- 이현정, 김익한, 이예성, 최준규 (2017). 세월호 유가족의 젠더와 가족유형에 따른 상실감의 특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7, 1-143.
- 이희연, 강미경 (2019).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사회복지재난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5(1), 1-18.
- 정수경, 강현석 (2015). 내러티브 개념의 다양성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23-45.
- 재난정신건강위원회 (2015). *재난과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한정민, 장정은, 전종설 (2020).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保健社會研究*, 40(2), 9-59.
- 한지생 (2023). 청년농업인의 진로의사결정 특성과 직업선택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34(1), 5-14.
- 홍성만, 서인석 (2018). 사회재난의 피해증폭 모형 연구: 재난적 초점사건, 사회적 상호작용, 재난피해 증폭의 가설적 관계 탐색. *한국공공관리학보*, 33(1), 51-82.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17). *Multicultural Guidelines: An Ecological Approach to Context, Identity, and Intersectionality, Adopted by the APA Council of Representatives in August 2017*.
- Arastaman, G. (2019). Reconsidering the career construction in modern era. In T. Fidan (Ed.),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construction in education* (pp. 1-14). IGI Global.
- Audre Lorde(1984). *Sister outsider: Essays and speeches*. Freedom, CA: Crossing Press. 주혜연 · 박미선 공역(2018). *시스터 아웃사이드*. 서울: 후마니타스.
- Berger, R. (2017). An ecological systemic approach to resilience: A view from the trenches. *Traumatology*, 23(1), 35-42.
- Brown, L. S. (2010). *Feminist 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 Bryant-Davis, T. (2007). Healing Requires Recognition: The Case for Race-Based Traumatic Str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1), 135-143.
- Chung, A. Y. (2013). From caregivers to

- caretakers: The impact of family roles on ethnicity among children of Korean and Chinese immigrant families. *Qualitative Sociology*, 36(3), 279-302.
- East, P. L., Weisner, T. S., & Slonim, A. (2009). Youths' caretaking of their adolescent sisters' children: Results from two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Family Issues*, 30(12), 1667-1691.
- Wikle, J. S., Jensen, A. C., & Hoagland, A. M. (2018). Adolescent caretaking of younger siblings. *Social Science Research*, 71, 72-84.
- Clandinin, D. J.,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 소경희 · 강현석 · 조덕주 · 박민정 공역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Murphy, M. S.(2007). Looking ahead: Conversations with Elliot Mishler, Don Polkinghorne, and Amia Lieblich. In D. J. Clandinin(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mas-Díaz, L.(2000). Ethnopolitical approaches to working with people of color. *American Psychologist*, 55(11), 1319-1325.
- Creswell, J. W.(2010). Mapping the developing landscape of mixed methods research. In Tashakkori, A., Teddlie, C.(Eds.), *The sage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45-68, Thousand Oaks. CA: Sage.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793-837.
- Hackett, G.,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6.
- Herman, J. L. (2023). *Truth and Repair: How Trauma Survivors Envision Justice*. Basic Books.
- 김정아 역 (2024). *진실과 회복*. 서울: 북하우스.
- Khang, Minsoo Lee, Dong Hun and kim, Yewon. (2018). Parental Perceptions of Surviving Sibling Grief Responses to an Adolescent's Violent and Sudden Death by the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Dying 0(0)*: 1-21.
- Maree, J. G. (2024). Online career construction for a trauma survivor with career choice ambivalence. *South Afric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38(2), 1-23.
- O'Brien, K. M. (2001). The legacy of Parsons: Career counselors and vocational psychologists as agents of social chang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1), 66-76.
- Parkes, C. M. (1988). Bereavement as a psychosocial transition: Processes of adaptation to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53-65.
- Rahiem, M. D. H., Ersing, R., Krauss, S., & Rahim, H. (2021). Narrative inquiry in disaster research: An examination of the use of personal stories from the child survivors of the 2004 Aceh tsunami.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65, Article 102544.
- Roland Barthes (2009). *Journal de deuil (Mourning*

Diary). Paris: Éditions du Seuil. 김진역 역
(2011). 애도 일기. 서울: 걷는나무.

1차원고접수 : 2025. 05. 08.

심사통과접수 : 2025. 08. 04.

최종원고접수 : 2025. 08. 16.

A Narrative Inquiry on the Career Experiences of Female Sibling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Kyodong Do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areer experiences of the female siblings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using a narrative inquiry approach, with the aim of analyzing changes i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and identifying influencing factors, thereby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support and growth strateg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fter the disaster, participants shifted their focus from external circumstances to internal values and the search for life meaning in their career choices. They commonly expressed a desire to exert positive influence, feelings of guilt toward their deceased siblings, a tendency toward self-evaluation, and resistance to conservative environments. These internal factors, coupled with anxiety and a diminished sense of social security, functioned as constraints i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he study suggests that career counseling and support for survivors of social disasters should integrate both individual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broader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micro and macro level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need for continued truth-finding and advocacy for victims' rights to help restore trust and facilitate safe, meaningful communication.

Key words : Female siblings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Survivors of social disasters, Career experiences, Narrative inquiry